

제1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육아정책연구소는 10월 29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1회「한국아동패널」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1차년도(2008년)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육아정책과 만족도, 양육행동 및 양육스트레스, 영아발달,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유형, 가족과 부부관계 등을 주제로 한 관련학계 교수 및 전문가들의 논문 31편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우수논문이 5편 발표되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복희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한국아동학회 이재연 회장과 한국유아교육학회 이연승 회장의 축사 후, 「한국아동패널」 연구책임자인 본 연구소 이정림 부연구위원이 연구 경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 | | |
|------------------|-------------------------------|
| Session 1 | 제 1 주제 : 육아정책과 만족도 |
| | 제 2 주제 : 자녀양육행동 |
| | 제 3 주제 : 기질과 영아발달 |
| | 제 4 주제 : 자녀계획 |
| Session 2 | 제 5 주제 : 어머니변인 및 육아지원서비스 이용유형 |
| | 제 6 주제 : 자녀양육스트레스 |
| | 제 7 주제 : 영아발달과 관련변인 |
| | 제 8 주제 : 후속출산계획 |
| Session 3 | 제 9 주제 : 어머니의 취업 |
| | 제 10 주제 : 부부관계 |
| | 제 11 주제 : 영아발달특성 |
| | 제 12 주제 : 대학원생 논문공모 수상작 발표 |

「한국아동패널」연구팀에서는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과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인적·물적 환경을 전국 단위로 조사함으로써, 아동발달 및 환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국가 수준의 종단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06년부터 한국아동패널 연구를 진행하였다. 모형 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1차년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3차년도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2009년에는 200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1차 심층조사로서 한국 베일리 영유아발달검사, 아동의 기질·애착 및 어머니 성격에 대한 변인 검사, 어머니 면접 및 자기보 식 응답을 통한 조사등을 실시하였다.

2010년에는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올해 4~7월경에 출생한 아동 1,000명을 중심으로 전국 6개지역(서울, 경인, 전라, 경북, 경남, 충청/강원)으로 구분한 뒤 각 전역 거점 대학의 교수를 중심으로 협력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의 학과 대학원생들이 본 연구소 주관의 면접조사원 교육을 이수한 후 병원을 직접 방문하였고, 어머니 면접을 통하여 신생아와 어머니 특성, 임신과 출산 관련 특성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동의 출생 4개월 후인 올해 8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구 전화조사를 통하여 정부 육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여부, 이용 여부 및 도움 정도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

한국아동패널 제1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육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되며 학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한국아동패널 제1회 학술대회를 통해서 「한국아동패널」이 학문적인 연구 뿐 아니라 육아정책 수립에 유용한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장을 열어주었다는 데 이 행사의 의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리 : 이정림 부연구위원